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고린도전서 1:1~13. 교회 회원들은 하나가 되고 불화를 피해야 한다. (15~20분)

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토론한다.

-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기 있는 학생들이 있는 교회 공과반 또는 정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가?
-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?
- 그런 성향은 공과반 또는 정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- 그것은 학생 또는 정원회 회원들의 교회 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?

교리와 성약 38편 25~27절을 읽고 또 이 성구가 어떻게 토론에 적용되는지를 생각한다. 고린도에 있던 교회 회원들이 불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바울은 주님께서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일깨워 주어야 하였다. 고린도전서 1장 10~13절, 3장 3절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이 구절은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?
- 회원들이 분열되는 것은 선교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?
- 분열, 질투, 불화는 왜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가? (제3니파이 11:29 참조)
-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?
-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단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

고린도전서 1장 2~9절을 읽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찾아본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단합시켜주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?

다음 성구를 읽고 또 각 구절이 하나됨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.

- 교리와 성약 61:8. ()
- 모세서 7:18. ()
- 요한복음 17:20~23. ()
- 고린도전서 1:9~10. ()

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

“단합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, 그런 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. ... 세상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힘은 교회 회원인 우리들이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” (Conference Report, 1983년 4월, 22쪽; 또는 성도의 빛, 1983년 7월호, 22쪽)

교회 공과반 또는 정원회가 더욱 단합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또래들에게 종종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?
-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?
- 학교의 여러분 또래들이나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

무엇인가?

“하나”가 되기 위해 다음 한 주 동안 노력할 수 있는 목표를 적는다.

고린도전서 1:17~31. 하나님은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택하셨다.(15~20분)

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.

- 만일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 속한 여러 명의 유력한 지도자와 중요한 토론을 하기 위해 대표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, 여러분은 교회가 유명한 대학 교수와 젊은 학생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 그 이유는?
- 교수는 학생에 비하여 어떤 힘이 있는가?
- 학생은 교수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?
- 교수의 힘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가?
-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는가?

(유의 사항: 교육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 토론을 사용하지 않는다. “세상의 약한 것들”은 지위 또는 교육에 관계없이 겸손하여 성신에 충분히 의지하는 이들을 말한다.)

고린도전서 1장 25~27절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

“질문: 세상의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가?”

“대답: 참된 종교는 지성, 또는 세상적인 탁월함 또는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성의 문제이다. 그리고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강하다.” (신약교리 주해서, 2:316)

이것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의 여러분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

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~31절을 읽는다. 찾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. 세상의 “약한 것들은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 겸손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도이다. “약한 것”에 관한 이 정의에 들어맞는 이들은 그들 자신의 지성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한다.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쓰실 수가 있다. (또한 교리와 성약 35:13 참조)

후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편 18~20절, 23절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교회 역사 또는 현 시대에 주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? ()
- 여러분이 왜 단순하거나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가?
- 주님의 손에서 쓰이는 강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?

주님은 오늘날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겸손하고 또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필요하시다.